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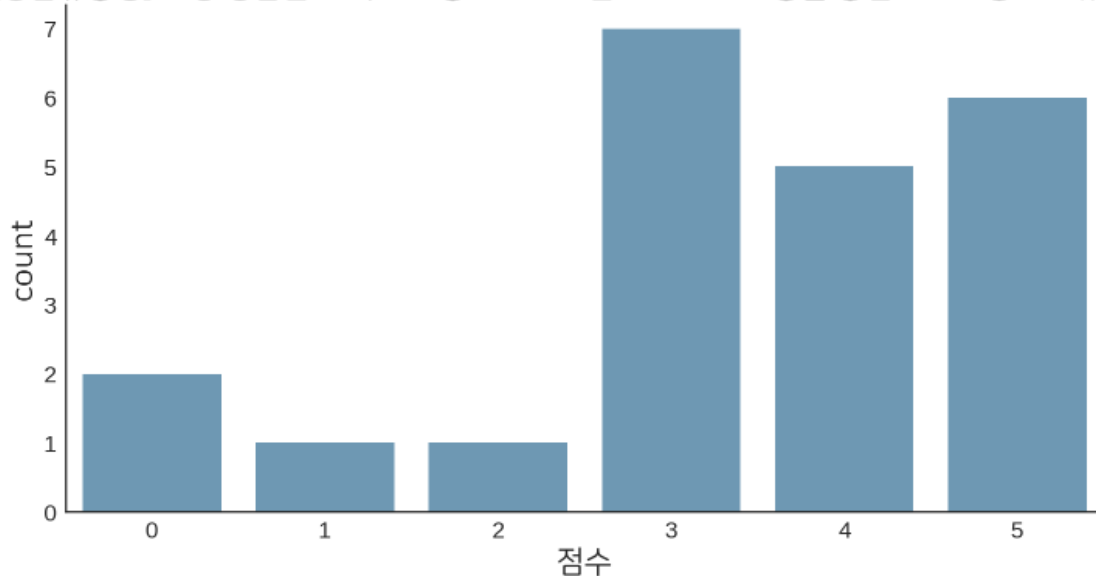
everyair 나도 평가단 피드백 분석 _ 평점 평가항목 시각화

**** 0점은 점수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**

→ 이 중에는 로그인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한 평가단 분도 있음

**** 5점, 4점, 3점, 2점, 1점에 따라 코멘트를 정리하였으며, 이는 엑셀에도 첨부할 예정입니다.**

[상품유용성] 해당 상품은 고객이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기능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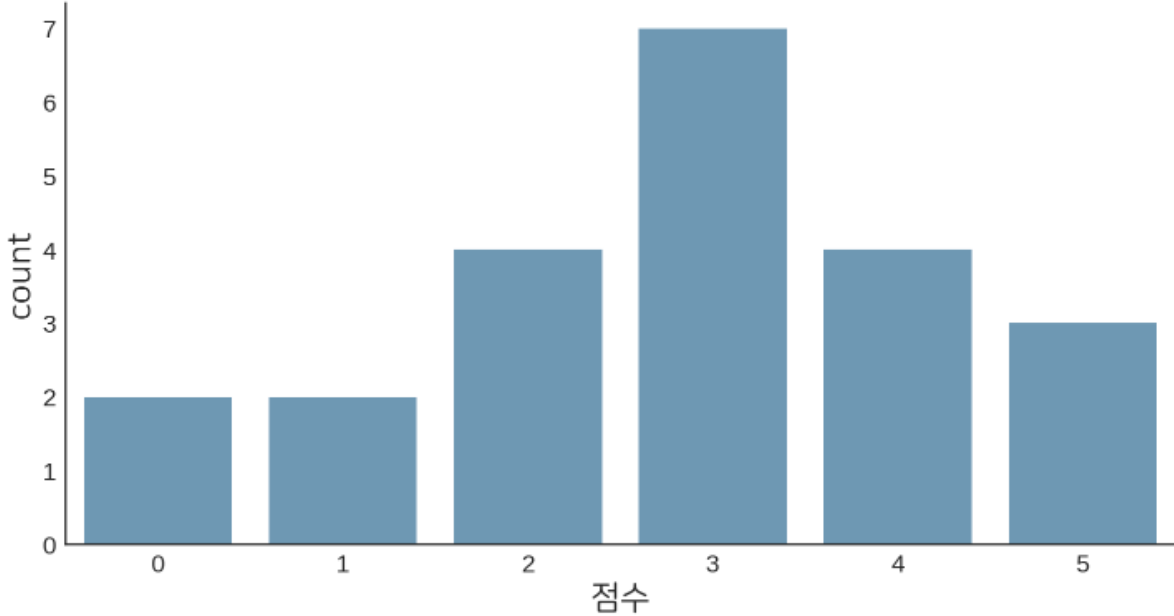
[5점]

- 현재위치에서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다.
- 직관적으로 기능을 제공한다.

[3점]

- 기존 어플과의 차별점을 잘 모르겠다.
- 아직 커버리지가 좁아 서비스의 기능이 충실하지 않다.

[UI/UX] 해당 상품은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와 아이콘 등이 직관적인가요?



[5점]

- 직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.
- 목적성에 부합하는 디자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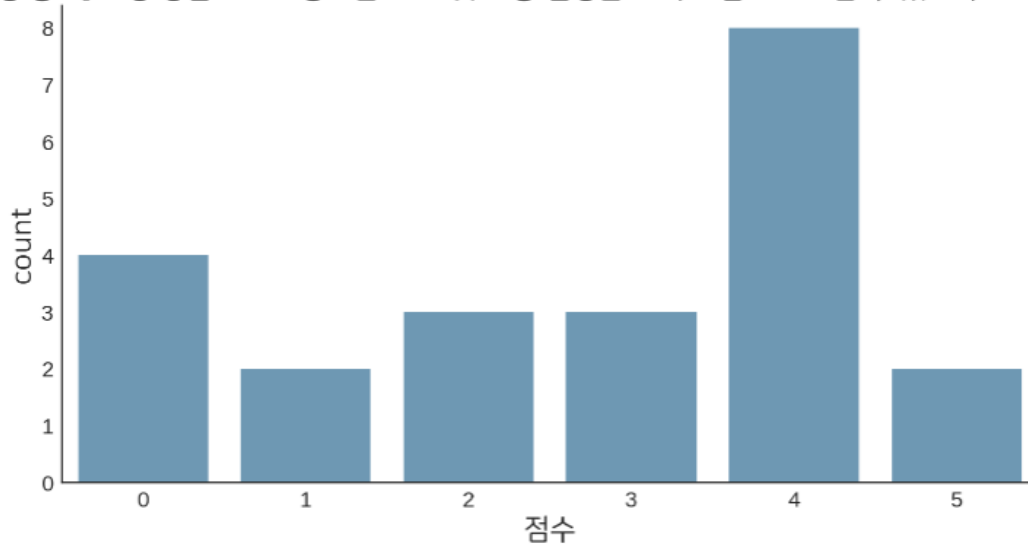
[3점]

- everyair가 나타내는 공기질에 따른 색상을 범례로 보여주면 좋겠다. 현재는 그 색상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기 어렵다.
- 나뭇 아이콘은 직관적이지 않다.
- 위치검색에서 선택한 지점 (주소 기반)와, 측정기의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잘 안보인다.
- 눈에 보이는 지도 범위 밖에 있는 경우, 센서가 어느 방향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풍선도움말이나 화살표 등으로 표시해 주면 좋겠다.
- 쇼핑몰을 검색하면 당연히 실내 공기를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데, 일단 주소지 기준 실외 공기를 보여준다.
- 실내공기질은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되는 지 알 수가 없다. 실내공기가 중요한 POI를 검색하면 우선적으로 "실내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" 라도 먼저 띄워야 할 것 같다. (네이버지도의 경우, 실내 지도가 있는 지하상가 등은 실외지도에서도 빨간 테두리로 보여줌)
- 온도/습도도 숫자만 보여주기보단 시각적으로 (bar / 색상) 쾌적한지, 아닌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.

[2점]

- 기존 미세먼지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UX/UI가 직관적이지 않다.
- 첫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.
- 상세정보를 보기 위해 위로 스크롤 하는 것이 직관적이지 않고 3일치 정보만 보이는 것이 아쉽다.
- 하단의 '검색'과 우측 상단의 '지도'의 차이가 모호하다.

[설명 용이] 해당 상품에서 제공하는 FAQ 및 사용 설명은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?



[5점]

- 사용 설명에 대한 이해는 쉽지만, 기능이 단순하여 설명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을 것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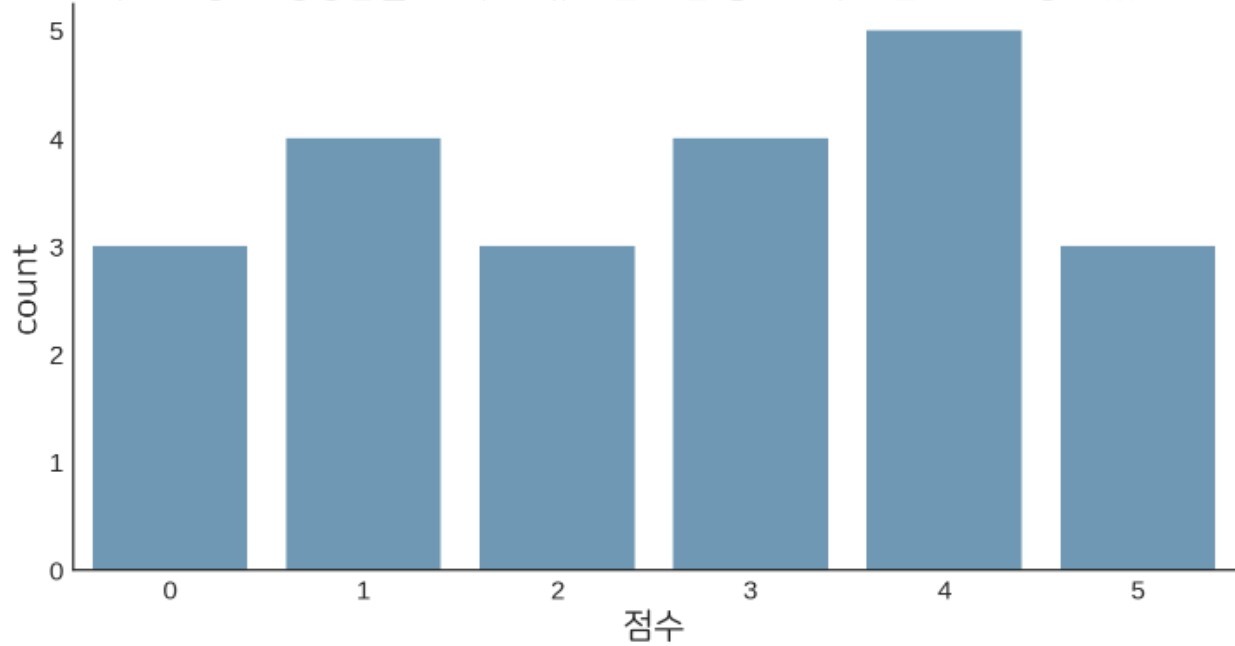
[4점]

- FAQ와 사용 설명이 고객들이 궁금해할 것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.
- 하지만 아직 시험 중이어서 그런지 깨진 글들이 보인다.

[0점]

- 사용 설명 화면을 보지 못해 사용할 수 없었다.

[추천의향] 해당상품을 지인, 가족, 다른 사람 등에게 추천할 만한 의향이 있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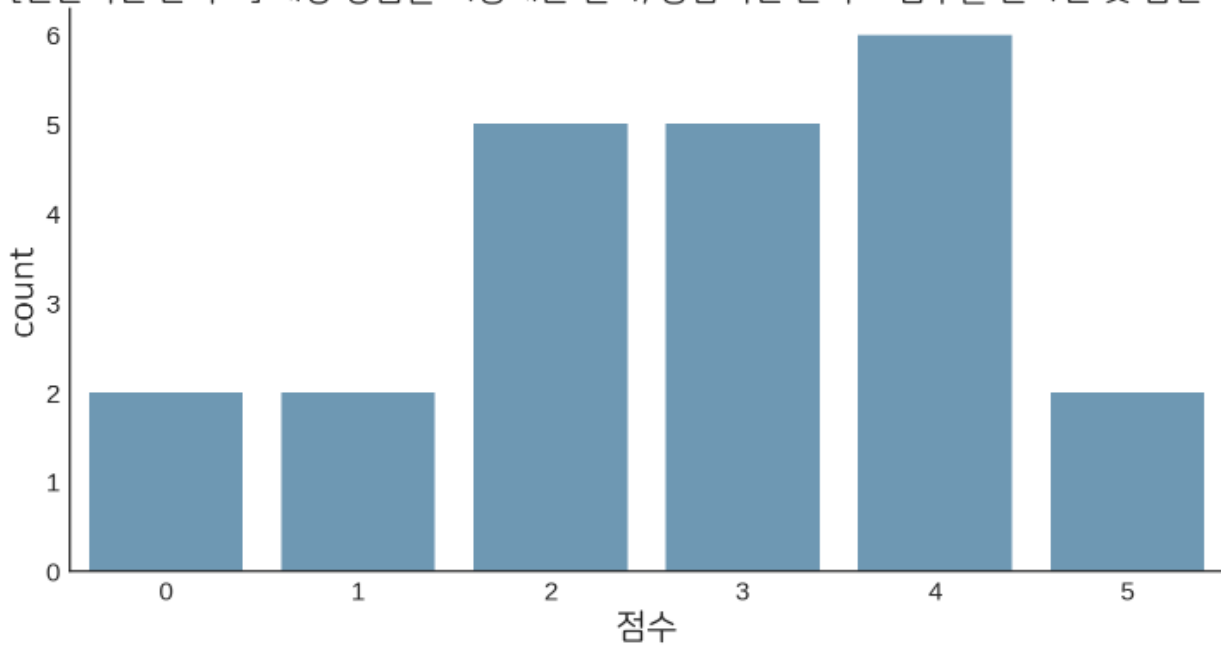
[4점]

-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아이를 키우는 지인에게 추천하면 좋을듯하다.
- 위젯 위주로 추천할 예정이다.

[3점]

- 기능 및 UI가 좋기는 하나, 공기질을 알기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번거롭다.

[전반적인 만족도] 해당 상품을 이용해본 결과, 종합적인 만족도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인가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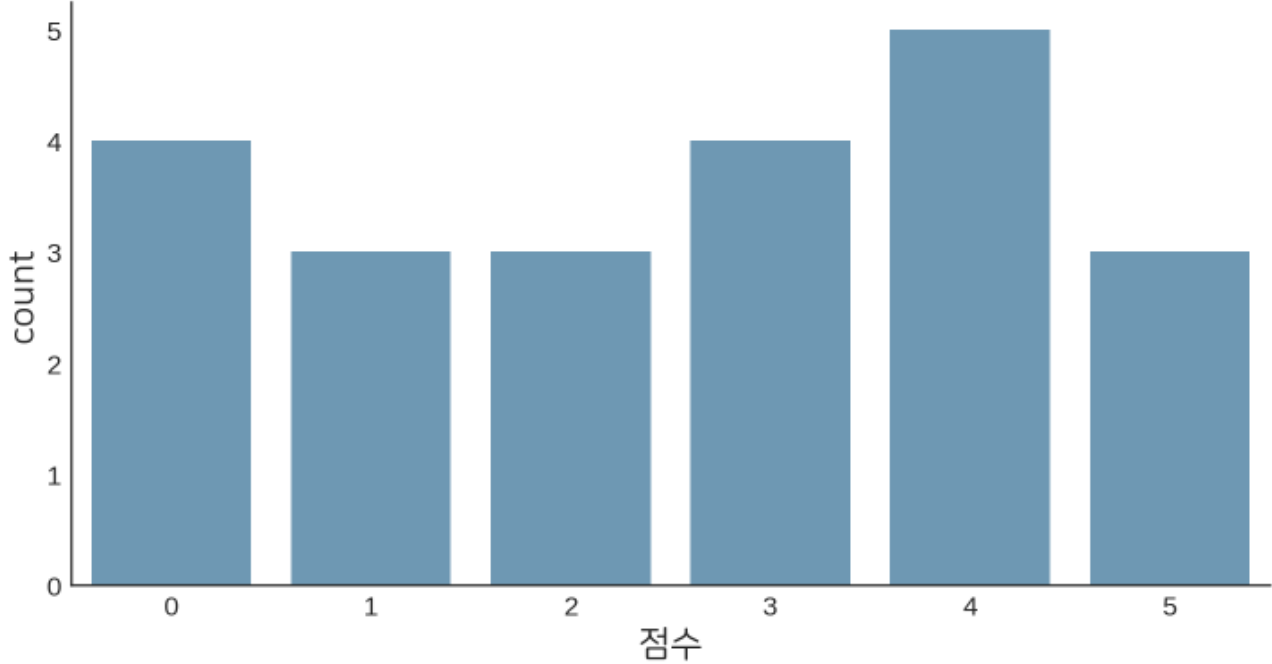
[4점]

- 너무 느리다.
- 직관적인 UI와 기능성으로 만족한다.

[3점]

-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하지만, 유사 서비스 대비 everyair의 강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.

[서비스 핵심기능의 유용성 파악] 서비스 사용 시 '실내'의 공기정보가 유용했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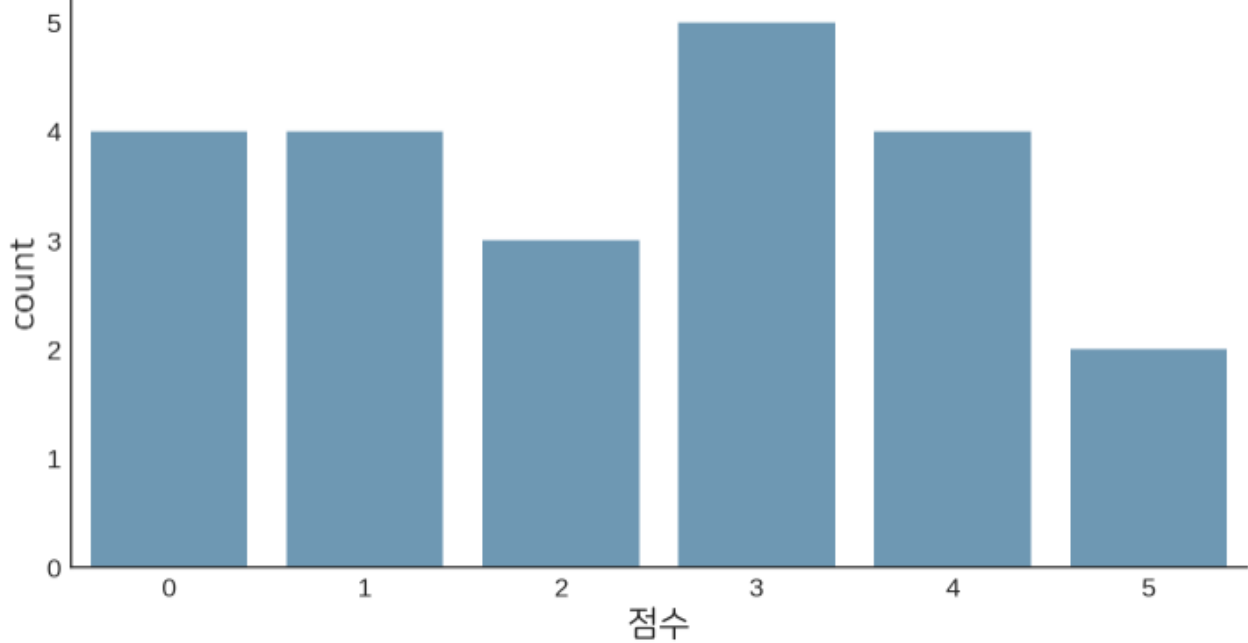
[4점]

- 본인이 속해있는 곳에 센서가 있다면 유용하다.

[1점]

- 보통 야외활동이 많은 날 미세먼지 지수를 보는 편이고, 아직까진 '실내'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.

[서비스 핵심기능의 유용성 파악] 서비스 사용 시 '실내 추천장소'가 도움이 됐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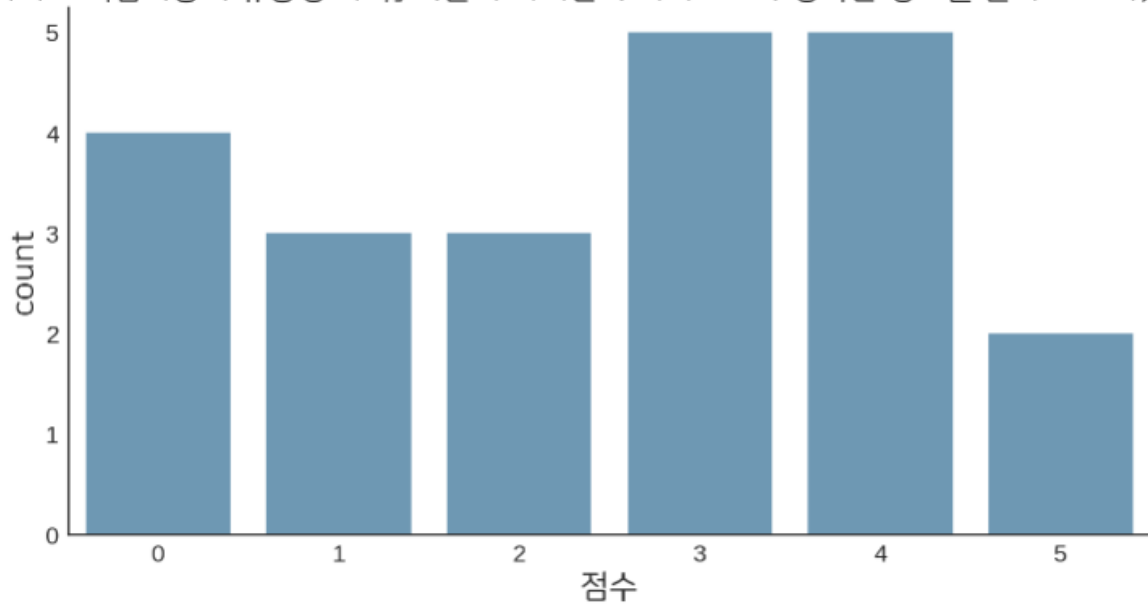
[3점]

- 실내 공기질을 보고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는 않기 때문에 목적성이 부합하지 않는다.

[2점]

- 전체 추천 장소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장소가 많지 않다. (5곳)
- 실내 공기 정보 때문에 가려던 곳을 안 갈 것 같지 않다. (단, 앞으로 등록 장소가 많아지고 신뢰가 쌓이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.)

[서비스 핵심기능의 유용성 파악] 기존의 미세먼지 서비스보다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느끼셨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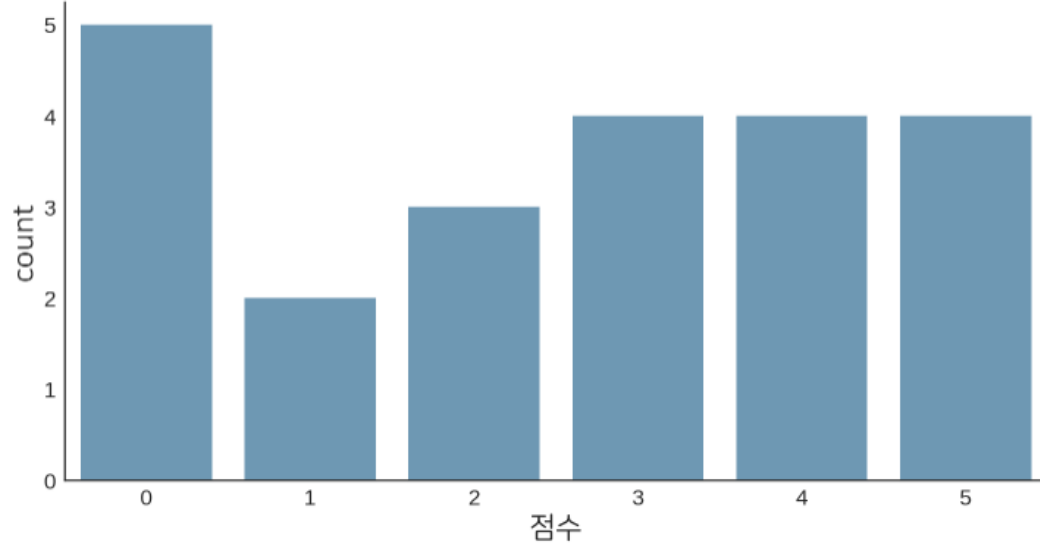
[5점]

- 타서비스 대비 신뢰성이 높다.

[3점]

- 유사 서비스 대비 정확한 정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.
- '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'는 메시지를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할 것 같다.

[서비스 핵심기능의 유용성 파악] 서비스 사용 시 관심지역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기능이 얼마나 유용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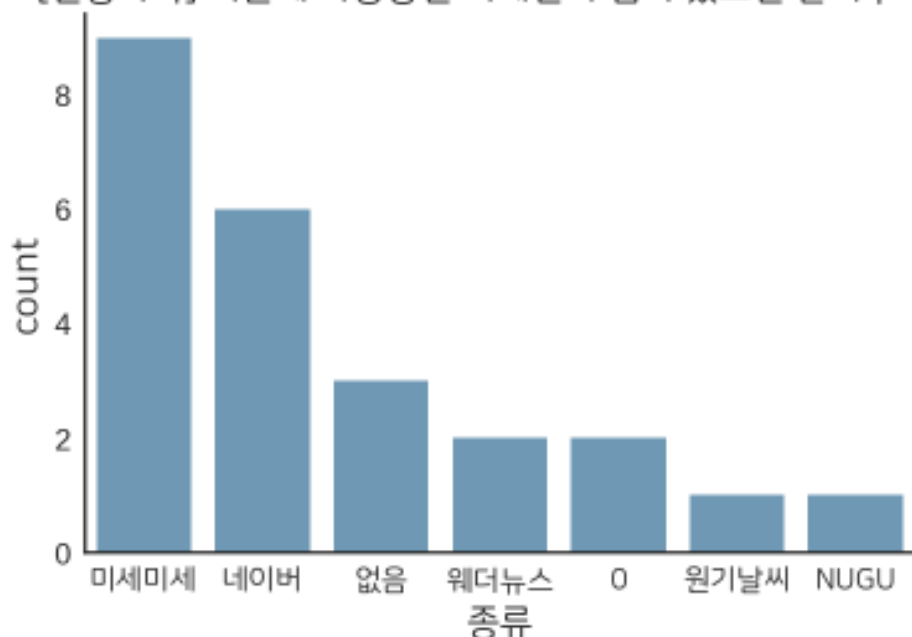


[5점]

- 다른 미세먼지 앱을 쓸 때도 관심 지역을 항상 등록하고 사용한다.
- 별표로 구분되어 비교가 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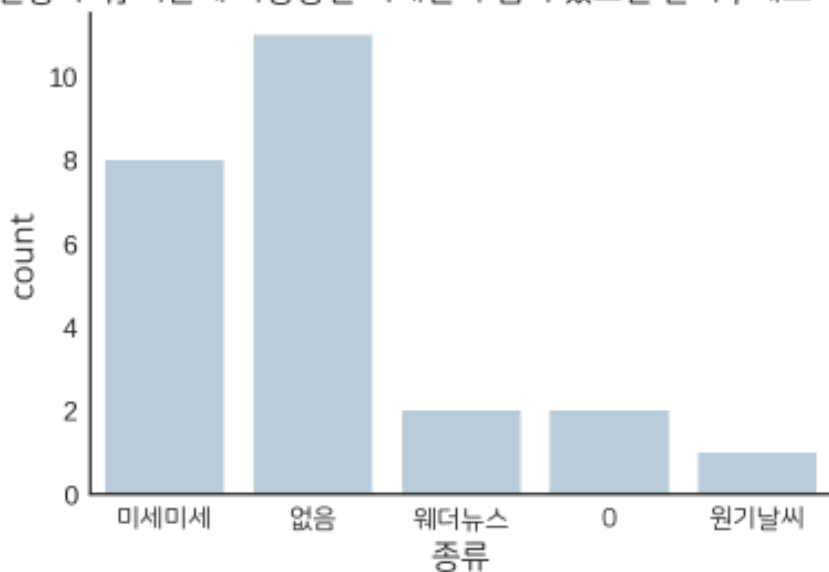
평점 평가항목은 아니지만 추가 시각화 할 수 있는 항목

[현황파악] 기존에 사용중인 미세먼지 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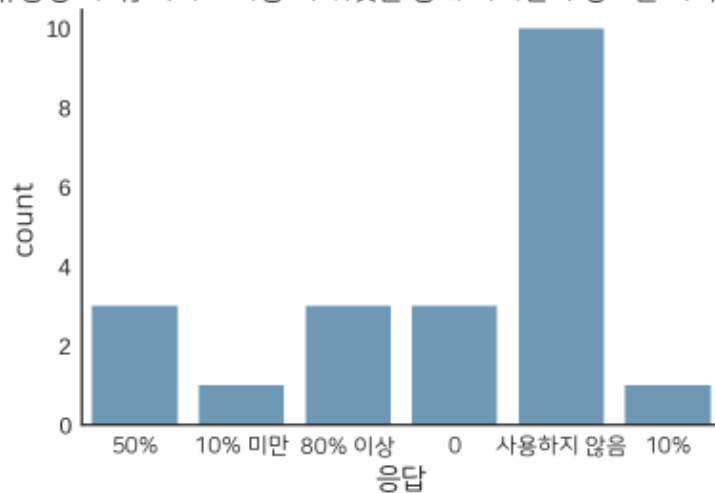


- 웨더뉴스 앱의 경우, 삼성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있다.
- 0이라고 나온 것은 위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무응답자이다.
- 네이버와 비슷하게 다음 포탈이나, 카카오맵을 이용한다고 한 의견도 있다.
- NUGU나 네이버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평가단의 경우, 사실 '미세먼지 앱'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'없음'이라고 응답한 평가단과 같은 케이스로 고려할 수 있다. 이를 반영하여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.

[현황파악] 기존에 사용중인 미세먼지 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--> 수정



[서비스 핵심기능의 유용성 파악] 서비스 사용 시 위젯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한 비율이 얼마나 되셨나요?



[사용하지 않음]

- '로드할 수 없음'이라는 메시지만 나온다.
- 자가용 출퇴근을 하는 편이어서 평소에는 미세먼지에 관심이 없으나, 외출하는 날만 목적지의 미세먼지 정도를 검색하여 위젯 설정을 하지 않았다.
- 미세먼지가 시간단위로 급격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실시간으로 알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.
- 필요할 때 마다 볼 수 있도록 네이버처럼 indicator 영역에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[80% 이상]

- 보통 위젯만 보고,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위젯을 터치해서 확인한다. (실제 기입은 70% 이상으로 되어있었지만,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값을 조정하였습니다.)